**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/오랄 로버츠**

****

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

초창기의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그의 인디언 회심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

'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?'고 물어보았습니다.

그 인디언은 그의 느낌을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표현했습니다.

땅바닥으로 몸을 굽힌 채,

그 인디언은 마른 나뭇잎들을 주어모아 그것으로 원을 만들었습니다.

그리고는 그 가운데에 벌레 한 마리를 떨어뜨린 뒤,

나뭇잎에 불을 놓았습니다.

불길은 삽시간에 그 불쌍한 벌레를 에워싸고,

벌레는 그 불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쳤으나 아무 소용없이 허우적 댈 뿐이었습니다.

마침내 벌레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헛된 노력을 하다가

끝내는 지쳐서 꼼짝않고 누워버렸습니다.

바로 그 순간, 그 인디언은 자기의 손을 뻗어서 꼼짝없이 죽을 수 밖에 없는 그 불쌍한 피조물을

살며시 들어올려 시원한 땅바닥에 내려 놓았습니다.

그리고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습니다.

"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일입니다."

(오랄 로버츠가 지은 “고통의 풍랑위를 걸을 때” 중에서...)